

수집 방침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에서는, 아시아미술의 독자성을 지닌 우수한 작품을 근대와 현대를 중심으로 계통적으로 수집하면서, 서양의 근대의 가치관으로 제작된 종래의 「미술」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아시아미술의 독자성과 고유의 미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을 수집하여 새로운 아시아미술의 가치와 창조를 지향하여 아래와 같은 수집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 (1) 아시아미술의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흐름을 계통적으로 제시한 작품
- (2) 아시아의 근현대를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민속예술, 민족예술, 대중예술
- (3) 기타 아시아의 근현대미술을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통적인 미술·공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의 근대미술」은, 아시아의 각국과 지역이 서양의 근대미술과 만나, 개인의 창조성을 중시하여 전통미술과는 다른 새로운 미술표현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의 미술이라는 뜻입니다.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에서는, 각 나라와 지역에서 각각의 다른 미술의 문맥에 따라, 이「근대」의 문제를 생각해 나갑니다.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는, 파키스탄이동, 몽골이남, 인도네시아의 이 북이서의 23개의 나라와 지역을 말하고 있으나*,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에서는 앞으로 전시회나 컬렉션의 확충을 통하여, 이 아시아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나갑니다. 일본인 작가에 관해서는,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아시아와의 교류의 성과로서 본관에서 발표된 작품에 한하여 수집합니다.

※ 23개 국가 및 지역 :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북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완, 타일랜드, 베트남, 일본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컬렉션

아시아의 미술 - 근대미술에서 현대미술로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은 근대이후의 아시아미술에서는 세계최대급의 규모인 약 4500점(2022년 4월 현재)이 이르는 아시아 근현대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갤러리에서는 18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기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23개국과 지역의 작품을 통해 아시아의 근현대미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이 리플렛에 게재된 작품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지만, 전 작품이 항상 전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Jamini Roy (India)
"Fawn" year unknown (detail)

1 아시아 근대미술의 여명기 - 양풍회화의 등장



Anonymous (China)
"The Hongs, Canton" c. 1850

이 회화작품들은, 주로 서방세계로부터의 아시아방문자나 여행자를 의식한 수출품이나 여행선물로, 구입자인 서구인들의 이국취미를 반영해, 매우 엑조틱한 매력에 넘치는 화풍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광둥지방에서 제작된 차이나 트레이드 페인팅(China Trade Painting), 영국통치기의 인도의 수도 캘커타(현재의 콜카타)에서 볼 수 있는 양풍회화, 동인도회사사원의 주문을 받았던 컴퍼니파(Company School)의 세밀화등입니다.



Saya Saw (Myanmar)
"Portrait of Royal Family"
late 19th - early 20th century



Gobindram Chattera (India)
"Portrait of Asaf-ud-Daula" early 19th century

그러나, 차츰 이 회화들은 서양인이 아니라, 서구적인 생활양식을 받아들인 아시아 각 지역의 상류계급이 주요한 고객층이 되어갔습니다. 영국통치시대의 버마(현재의 미얀마)의 수도 만다레이의 궁정화가들이 그린 양풍회화도 마찬가지로, 주로 귀족들이 사서 사원에 헌납했습니다. 또한 민중들 사이에서도 인도의 카리가드회(Kalighat)화, 바르마프린트(Varma Print)와 같이 서양의 음영기법이나 원근법을 받아들인 종교회화가 전개되었습니다.

2 아시아의 근대미술성립에서 모더니즘의 전개까지

20세기 전반 아시아각지에서는 내쇼널리즘을 배경으로 식민지통치하로부터의 독립열망이 강해지면서 국민국가형성을 향한 움직임이 대두하게 됩니다. 미술의 영역에도 이와 같은 사회상황이 반영되어 근대국가에 걸맞는 미술교육 및 전람회 같은 제도가 급속히 갖추어졌으며, 서구유학을 하거나 서구식의 미술교육을 받은 젊은 미술가들이 중심으로, 자국에 맞는 근대미술이 형성되어갔습니다.



Chen Chin (Taiwan)
"The Women of Shantimen Area" 1936

이 코너의 전반에서는, 근대국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제작된 작품을 소개 합니다. 많은 아시아의 근대미술가들은 고희, 고갱, 마티스 같은 인상파이후의 서양화가들의 작품에 매료되어, 그 화법을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표현이나 각자의 토지고유의 재료와 소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독자적인 양식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930년대부터 순수한 조형을 추구하는 서구의 모더니즘 경향에 관심을 기울이며 추상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미술가와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Luong Xuan Nhi (Vietnam)
"A Reading Girl" 1940

20세기 후반, 태평양전쟁이 끝나면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서구 및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해, 국제사회 속에서 본격적으로 독립국가로서의 출발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와 보조를 맞추듯이 1930년대경부터 나타난 추상적인 표현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갔습니다. 이 코너의 후반에는 이상과 같은 각 지역의 추상표현의 성숙단계를 보여주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George Keyt (Sri Lanka)
"Still Life with Lemons" 1946



Khien Yimsiri (Thailand)
"Musical Rhythm" 1949

3 아시아의 현대미술 - 사회성의 테마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전후의 아시아는 다양화와 지구화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변화의 양상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불안정한 사회정세가 계속되고, 군사독재정권과 그에 대한 반발로서의 민주화운동, 경제의 자유화와 자본주의경제의 폐해, 도시와 농촌의 분열과 빈부의 격차등의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큰 변화에 대해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정치를 비판하거나, 사회의 부조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사소한 것이나 약자들에게 눈길을 보내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 다수 제작된 사회적인 문제를 테마로 한 작품은 이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1980년대말에는 퍼포먼스나 설치(공간전체를 작품으로서 구성하는 표현방식)와 같은 새로운 표현방법이 등장합니다.



Ravinder Reddy (India)
"Woman Holding Her Breasts" 1998

1990년대에 들어서면 지구화의 물결과 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라, 아시아에도 미술시장이 형성되며,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국제전이 열리게 됩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 이주하는 작가가 늘어났으며, 인간관계의 양상도 미술의 국제적 네트워크도 다양화, 세분화되어 갔습니다. 아울러 작품의 테마는 사회적, 역사적인 것뿐 아니라 개인적인 세계나 일상과 같은 신변의 세계로, 표현기법에 있어서는 새로운 영상이나 컴퓨터를 사용한 미디어 아트가 확산, 보급되어 갔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나 관객참여형의 이벤트를 열어 작품을만드는 등의 새로운 제작장식의 모색도 등장했습니다.



Fang Lijun (China)
"Series 2 No.3" 1992

이 코너에서는 저희 미술관이 개최하고 있는 「후쿠오카 아시아미술트리엔날레」,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모체인 후쿠오카시미술관이 개최하고 있는 「아시아미술전」의 출품작등에서 1980년대이후 현재까지의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소개합니다.

Tserennadmidin Tsegmed (Mongolia)
"Orkhon" 1993



Amanda Heng (Singapore)
"Another Woman No.2" 1996

